누구나 혜택받는 '군민안전보험'

진안군, 예기치 못한 사고 위로·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위해 모든 군민 대상 가입

진안군은 군민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재해 등으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모든 군민을 피보험자(수혜자)로 하는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보험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수혜대상은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군민(외국인 포함)이다. 주민등록 자료를 활용하여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누구나 자동 가입되고, 타 지역 전출 시에는 자동으로 보험가입이 해제 처리된다.

주요 보장항목은 △화재폭발붕괴 상해사망,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사고 사망, 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후유장해,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 후유장해, △익사 사고 사망, △가스사고 상해 사망, 후유장해 등 총 26종이다.

변경된 보장내용을 보면, 코로나 19 감염병이 2급 전염병으로 변경됨에 따라 감염병 사망보장 항목이 삭제되고, △자연재해상해사망, △온열질환진단비,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사망·후유장해, △전세버스이용중 상해사망, △사회재난사망 7개 항목이 추가됐다.

전춘성 군수는 "불의의 사고를 겪은 군민들에게 보험금이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군민안전보험의 지속적인 확대·운영을 통해 군민들이 재난·재해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진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진안군은 지난 2018년을 시작으로 매년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군민안전보험을 통해 지난 5년간 농기계사고·폭발화재사고, 뺑소니 사고, 감염병사망·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 치료비 등 30건의 안전사고에 대하여 3억 1,230만원을 피해 보상을 받는 등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청년 키움 두 배 통장지원

군, 저소득 근로청년 안정적 자립 지원 위해 사업 추진

무주군이 지역내 저소득 근로청년의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무주청년 키움 두 배 통장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무주청년 키움 두배 통장지원' 사업은 청년이 36개월 동안 매월 10만원씩 적립할 경우 군 재원으로 동일한 금액의 자립지원금을 적립해 주는 것으로, 만기 시 본인 저축액의 두 배에 해당하는 원금을 받을 수 있다.

공고일 현재(1.8) 현재 주민등록상 무주군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원 기준 중위소득 120%인 만 18세 이상 만 49세 이하(1973~2004년생)인 청년이 대상이다. 무주군에 사업장을 두고 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현재까지 근로중인 임금 근로자와 일용 근로자, 사업소득자, 농축산업 소득자가 해당된다.

다음달 8일까지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고 신청서 등 필요서류(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근로 입증 및 경력확인서 등)을 갖춰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선발은 가구소득인정액 비율이 낮은 가구 순으로 하며, 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낮은 자, 가구원 수가 많은 자, 연령이 많은 자 순으로 한다. 최종 선정자는 다음달 18일 무주군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며, 다음달 23일 교육 후 오는 3월부터 적립금을 지원한다.

무주군 기획실 청년정책팀 김재완 팀장은 "키움 두 배 통장은 성실하게 일하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무주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며 "두 배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만큼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도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설 명절 장보기는 전통시장에서"

최훈식 군수·직원들, 장계시장서 장보기 행사·물가안정 캠페인 실시

장수군은 18일 설 명절을 앞두고 장계시장에서 최훈식 군수와 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설 명절 장보기 행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을 실시했다.

장수군은 18일 설 명절을 앞두고 장계시장에서 최훈식 군수와 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설 명절 장보기 행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장보기 행사는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통시장 활성화 및 합리적 소비문화 확산과 소비자 물가안정 동참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이와 함께 군은 지난 5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설 명절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민생경제과장을 중심으로 농산유통과, 축산과, 환경위생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운영하여 설 명절 성수품(32개 품목)을 집중 관리하고 있다.

군은 직원들이 솔선해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및 전통시장 상품 구매를 독려할 예정이며 장수사랑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전통시장 이용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훈식 군수는 "설맞이 장보기 행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을 통해 고물가·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고 군민들이 넉넉한 설 명절을 보내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통시장 장보기가 일상화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설 명절 장보기 행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은 20일 장수시장에서도 전개될 예정이다. /장수=고판호 기자

진안군, 설맞이 상하수도 특별대책 추진

진안군은 설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은 귀성객 및 군민들의 불편사항 해소와 단수사고 발생 등을 대비하기 위한 상하수도 비상대응 특별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군은 상하수도과장을 상황실장으로 명절기간 내 비상급수반 및 긴급복구반 등 4개반 40명의 상수도 특별대책반을 편성해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과 원활한 하수처리를 책임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책반은 정수장 4개소와 배수시설 147개소 등 상수도 시설물과 하수처리장 47개소와 중계펌프장 255개소의 하수도 시설물을 사전점검해 수리가 필요한 시설물을 보수하는 등 맑은 물 공급과 하수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대비를 마쳤다.

또한 명절 전날과 당일 등 물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는 시간대에 고지대와 관말지역에 일시적 물 부족 현상과 출수 불량 등 사고 발생에 대비해 비상급수(5톤 규모) 차량 대기와 비상생수병 1000세트(2L, 6개)를 확보하는 등 비상 상황 대비에도 만전을 기했다.

이철민 상하수도과장은 "상하수도시설에 대한 철저한 사전검검과 신속한 민원 처리체계를 구축해 안전한 수돗물 공급과 하수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농촌관광 휴양시설 점검 나선다

무주군은 관광객들이 집중되는 동절기와 설 연휴를 맞아 농촌관광 휴양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무주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무주의 청정 이미지를 심어주고 편안하고 안전한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무주에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올해 초부터 오는 2월 24일까지 무주군 관내 농어촌민박 111개소, 농촌체험휴양마을 19개소, 관광농원 2개소 등 모두 132개소를 대상으로 농촌관광 휴양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시설물·위생관리와 화재사고 방지 등 안전관리에 힘쓴다.

주요 점검사항은 시설물 정기 점검 실시 여부를 비롯해 위생관리, 소방안전교육 이수 여부 확인과 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소방시설의 정상작동 여부, 난방시설 이상 여부 등과 함께 건물가스·전기 등 안전사고관리 관련 내용을 살핀다.

무주군 농촌활력과 김광영 과장은 "설연휴 동안 무주를 방문한 귀성객들이 따뜻한 명절을 지낼 수 있도록 안전사고 관리와 위생, 화재 등을 돌보고 있다"며 "전기·가스 화재 등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과 예방효과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과수분야 농기계 지원사업 확대 시행

장수군은 인건비 상승문제와 농촌인구 감소로 노동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과수농가에 농기계 지원을 확대·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장수사과의 경쟁력 향상과 농작업의 효율화를 위한 농기계 지원의 필요성을 느끼고 지난해 고소작업차 지원사업을 시작했으며, 올해 추가적으로 스피드 스프레이어(S·S기) 지원사업과 농약희석기 지원사업을 확대·신설했다.

사업량은 각각 고소작업차 20대, S·S기 15대, 농약 희석기 50대 등 총 85대로 지원 단가 내 구입 비용의 50%까지 지원하며, 오는 25일까지 읍·면 농업인상담소를 통해 신청받는다.

신청자격은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과수(사과)재배 농업인으로 2월 중 영농규모, 보조금 수혜 이력 등을 고려해 장수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최훈식 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과수농가들의 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농기계 지원사업을 확대를 통해 인력수급난을 해소하고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켜 농가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지역 소식통

진안군, 시설원예 농가 유가보조금 지원

진안군은 시설원예농가에 한시적으로 유가보조금을 지원한다.

이는 지속된 고유가 상황으로 난방비 부담이 큰 시설원예농가의 경영악화를 완화하고, 이로 인한 채소가격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비로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농협에 농업기계 보유현황 및 난방기 재배계획 신고를 하고, 면세 유류 구매 카드를 발급받은 시설원예 농가·법인으로 지난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간 사용한 난방용 면세유 구매분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신청서 제출 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내용은 월별·유종별(난방용 등유·중유(부생연료 포함) 및 LPG) 평균 가격과 기준가격의 차액 50% 지원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2월 10일까지로 신청 기간 내 농가(법인)별 면세유 관리 지역농협을 방문해 유가 연동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진안군 관계자는 "시설원예 농가의 경영비 절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기한 내 제출할 것"을 당부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재가노인 식사 배달 무료경로식당 지원 단가 인상

장수군이 재가노인 식사배달 및 무료 경로식당 사업 지원 단가를 인상했다고 18일 밝혔다.

군은 결식 우려 노인을 위해 무료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거동불편 노인에게는 집으로 식사를 무료 배달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의 1식 지원 단가는 4,000원에서 6,500원으로, 무료 경로식당 사업은 3,5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됐다.

이번 인상은 식료품 물가 상승을 반영해 급식단가를 현실화하고, 질 좋고 영양가가 풍부한 식사를 어르신께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군은 무료급식 지원 단가 인상으로 양질의 급식 제공과 함께 위생관리에도 신경 써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적극 조성할 계획이다.

/장수=고판호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펜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게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옥),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